

14인 거장이 들려주는 한국화 이야기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전시 '거장들의 하모니-한국화, 살아 숨 쉬다' 개막

정읍시립미술관의 특별기획전시 '거장들의 하모니-한국화, 살아 숨 쉬다'가 12일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염영선·임승식 도의원, 이경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해 기획전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특별기획전시는 한국화의 독창성과 예술적 깊이를 되새기고, 그 시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기획됐다.

특히 한국 전통 회화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기운생동'이라는 전통적 사상에 기반해 한국 화가 단순한 외형 묘사를 넘어서 내면의 정신성을 어떻게 담아냈는지를 탐구하며,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독창적인 한국미술의 매력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상범, 변관식, 김은호, 허백련 등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14인의 거장들의 작품을 3개의 전시실에서 주제별로 감상할 수 있다.

1전시실은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전통 회화의 발전에 기여한 '근대 6대가'의 작품으로 구성됐고, 2전시실에는 채색의 아름다움의 주제로 전통을 기반으로 한 근현대 채색화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3전시실에는



정읍시립미술관의 특별기획전시 '거장들의 하모니-한국화, 살아 숨 쉬다'가 12일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현대적 변용을 주례로 한국화의 정체성과 현대의 연결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또한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인 '공생공존과 내가 그린 산수'를 통해 전통 회화의 미학을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학수 시장은 "한국 전통 미술의 14명의 대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

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화의 깊이와 매력에 저정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관람료는 일반 5000원, 정읍시민 2000원으로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석정 서거 50년 기획전시

부안군문화재단 석정문학관, 11월 5일까지 진행

부안군문화재단이 운영중인 석정문학관은 9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 신석정 서거 50년 기획전시 '아름다운 지구 -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석정의 생태주의 시선'을 개최한다.

재단은 이번 전시에서 신석정 서거 50년을 기념하여 신석정시인과 시대가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석정의 목가주의 시세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태주의적 문학성을 추출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인의 메시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주의적 상상력이다.

전시는 신석정 시인의 생태적 상상력을 뚫고난 지구, 좁은 지구, 아름다운 지구라는 소주제로 나누어 연구 전시하고 각 주제별 5편의 대표시를 전시했다. 또 석정이 가꾸던 '비사벌초사' 정원의 현재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과 직접 가꾸던 난초 화분 등을 유족에게 기증받아 전시한다. 전시의 학예연구는 박태건 국문학박사가, 전시연출은 박중찬감독이 맡았다.

아울러 전시회를 찾는 모든 관람객이 시인의 시를 씨앗엽서에 필사하여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 씨앗에서 싹이 터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전시를 볼 수 있다.

기획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부안역사문화관에서 신석정 생가터를 거쳐 석정



문학관에 이르는 해설이 함께 하는 '석정길, 아다지오 문학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화신청을 통해 회당 15명, 가족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시기간 중 총 2회(5일, 12일, 오전 10시, 90분 소요, 전화 070-8826-9670) 운영한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신석정 시인의 시와 삶을 기리고 우주적 자연에서 삶의 길을 찾는 상상력과 지혜를 배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경안 새만금청장, 한중문화 예술교류회와 관광교류 시동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24 평화의 비룡기 한중문화예술교류회에 참여해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추어 코루트관광 분야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중문화예술교류회는 12일 오후 1시30분 군산GSCO컨벤션 1홀에서 중국과 한국 참가자 619명이 참석해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문화예술교류회는 치파오 패션쇼를 중심으로 중국 운남성 소수 민족 공연 26개 프로그램과 인천 무지개예술단, 옛동창예술단 등 14개 예술공연단이 참여하여 한국과 중국 간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이 끝난 후, 새만금 현장, 고군산군도를 둘러보고 규모와 진행되는 기술에 놀랐으며, 군산 시내 근대문화유산 거리와 전주 한옥마을 등을 방문하여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잘 정돈된 경기전과 한옥마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김경안 청장은 "한국과 중국 간 문화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한중문화예술교류회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새만금을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추석 한마당 큰잔치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024년 추석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추석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다.

특히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박물관을 무료로 열어 많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군산시는 역사체험극, 풍물놀이, 미술, 저글링, 캐리커처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이 관람객에게 각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신명 나는 국악 풍물놀이가 연휴 동안 오후 1시, 3시에 박물관 광장에서 펼쳐지면서 방문객을 반긴다.

벨트와 지역에서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군산의 일제강점기 수탈사와 근대 문화재 관련 체험극이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공연을 통해 군산 근대역사를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15일과 17일 오전 11시에는 저글링 공연 △16일 오전 11시에는 미술공연이 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만약 나만의 개성있는 캐리커처를 소장하고 싶다면 15일 오후 2시, 17일 오후 1시 박물관 3



층을 방문해보자. 실력 있는 작가들이 준비한 '나만의 캐리커처'를 만날 수 있다.

연휴 동안 눈여겨볼 전시회도 많다.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기획전을 통해 군산의 지명 어원인 군산도의 과거와 오늘을 소개한다.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김순화 개인전 '버려지는 황금사과로 만드는 추억여행'이라는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도 열리고 있다.

근대미술관에선 이철규 작가 초대전 '산수 群山水', 장미갤러리에서는 김경아 작가의 '바람의 기억'과 고(故) 허반영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선사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추석 연휴 전통문화 체험 즐겨요"

한국전통문화전당, 특별행사 마련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과 시민을 위해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행사를 마련했다.

12일 전당에 따르면 먼저, 15일에 △전통음식 구절판 만들기 △가족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15일과 18일에는 △한지 체험(한지풍경, 한지 그림북) △전통 수공예 체험(패브릭 매듭 가방, 옛햇티코스터) 등이 운영된다. 또한 14일부터 18일까지 가족 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십이간지 옷놀이 체험이 진행된다.

또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14~15일 양일간 △한지 제조 △추석 등 만들기 △한지 엮서 제작 등 한지 체험과 함께 대형 한지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전주에품전시관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스탬프 투어 △마중스퀘어 포토존 △오목대 전통정원 전통놀이 체험 등을 운영한다.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운영해 한지 감사 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15일에는 전통민속놀이, 비눗방울쇼, 마술쇼 등 공예생활 이벤트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에서는 14~15일 양일간 우리놀이 미션 수행 프로그램인 '돌아돌아 송편여행'이 운영되며, 부대 행사로 '장금이를 찾아라' 이벤트가 마련됐다. 우리놀이 마무달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실내 놀이 및 마무달이 체험이 상시 운영된다.

전당에서 진행되는 추석맞이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전당 누리집(ktt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영 원장은 "추석 연휴기간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당과 함께 전통문화의 가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풍성한 한가위를 맞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